

調查問題選定과 形成에 隨伴되는 몇가지 問題點

金 海 東*

<目 次>

- | | |
|-----------------------|---------------|
| 1. 序 | 4. 調查問題의 소오스 |
| 2. 調查問題의 選定基準 | 1) 既存知識體系 |
| 1) 創意性(originality) | 2) 社會的 要請 |
| 2) 試驗可能性(testability) | 3) 社會的 價値와 規範 |
| 3) 道義的 配慮 | 4) 個人的 經驗과 趣向 |
| 3. 調查問題의 選定과 學術的 價値 | |

1. 序 言

특히一드事件으로 刑務所生活을 하던 日本의 田中 首相이 獄中에서 國會議員에 立候補하여 壓倒的인 票差로 當選되었다. 8·8 조치 直前に 우리나라의 不動産에 對한 投機癖은 그 價格의 오락세를 捻잡을 수 없는 狀態에 이르게 하였다. 李君은 自他가 共認하는 美男學生인데 어떤 한쪽 눈이 찌부러진 女學生을 熱熱히 따라다닌다. 또는 어떠한 사람이 어떤 계기로 高等學生인 自己 아들이 몇 日前부터 學校에 登校하지 않고 있다는 事實을 알게 되었다. 한 여름에 눈이 내린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어제 까지 떨썈하던 自己집 고양이 죽어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現象들은 우리가 日常生活에서 當面하는 것들이다. 事實上 우리는 恒常 크고 작은 問題들을 겪어가면서 이 世上을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積極적으로 好奇心 이라든가 科學的인 熱意에 依하여 問題를 찾아다니기도 한다. 前述한 몇가지 現象을 포함한 이러한 問題들은 大體로 根本的으로는 그것이 爲이나 하는 問題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또는 어떻게 하여 그러한 現象이 惹起되었느냐 하는 質問이 明白하게 또는 潜在的으로 含蓄되어 있다. 例를들면 田中 前日本首相의 當選을 可能하게 한 것은 爲이나? 또는 어떻게 當選이 可能하였는가? 우리나라에서 그와같은 不動産投機가 왜 惹起되었는가? 그러한 現象이 우리나라 經濟에 有害한 것이냐? 萬一 有害한 것이라면 그것을 抑制하는 效果的인 方法은 무엇이나? 어찌하여 美男大學生 李君이 한쪽 눈이 찌부러진 女學生을 따라다니는

*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教授

가? 自己 아들이 學校에 가지 않는 理由는 چیست인가? 어떻게 하여 여름에 눈이 내리게 되었는가? 고양이의 死因은 چیست인가? 이와 같은 質問이 곧 「問題」(problem)에 該當하고 그러한 質問에 對한 對答 또는 解決策을 提示하는 어떠한 方法 또는 一連의 節次가 곧 科學的方法이고 그러한 對答이나 解決策을 追求하는 過程이 곧 科學的 調查의 過程(process)인 것이다.

여기서 이와같은 調查問題들 選定함에 있어서 考慮하여야 할 몇가지 事項에 關하여 檢討하고자 한다.

2. 調查問題의 選定基準

前述한 바와 같이 人間은 크고 작은 問題들을 接하면서 生活을 하고 있으나 科學的 調查에서 그와같은 모든 種類의 問題들 다 取扱하지는 않는다. 換言하면 前述한 例에서 보는 諸 質問들이 「問題」이기는 하나 科學的 調查에서 그러한 問題들 다 다루지는 않으며 科學者는 그 中에서 어떠한 問題만을 골라서 研究하게 된다. 말하자면 그러한 크고 작은 問題들 中에서 研究할 價値가 있다고 判斷되는 問題들 選擇한다는 것이다.⁽¹⁾ 勿論 모든 科學者들이 自己가 하는 研究가 重要하지 않다든가 研究할 價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본다. 事實上, “모든 科學者는 自己가 願하는 어떠한 問題도 研究할 權利가 있다”고 하는 것이 科學者들의 信條인 것이다. 그러나 一般的인 또는 第三者의 立場에서 研究할 價値가 있다고 評價하는 基準을 檢討해 볼만하다고 생각한다. 가령 研究를 시키는 또는 研究資金을 配定하는 立場이라든가 學生들에게 論文을 쓰게 하는 立場에서 말이다. 이것은 研究 또는 研究의 結果를 評價하는 基準과는 다르다.

1) 創意性(originality)

調查問題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科學的 調查의 問題는 于先 지금까지 이 社會에 滿足스러운 解答 또는 說明이 提示되지 않은 問題에 限한다.⁽²⁾ 따라서 一般的 解決이나 說明이 成功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이제 새롭게 追加 蓄積된 知識의 一部이며 이것을 理解하고 確認하고 진과하는 것은 調查問題(research problem)가 아니라 教授(teaching)하고 傳達(communication)하는 問題에 屬한다. 따라서 學生들이 教授에게 어떠한 問題에 對한 質問을 하고 教授가 이에 對하여 解答을 하는 것은 調查活動이 아니라 教授活動(teaching activity)에 屬한다. 또한 科學者가 新刊書籍이나 定期刊行物에 나온 論文을 읽는 것은 그와같은 調查問題에 對한 調查報告書를 읽는 것으로서 적어도 그것이 그가 關心을 가진 어떤 調查問題에 對한 假說을 構成하는 아

(1) La arsfeld, *Qualitative Analysis: Historical and Critical Essays*. (Boston: Allynad and Bacon, 1952). pp. 183-184.

(2) G. Helmstadter, *Research Concepts in Human Behavior* (W.Y.: Meredith-Corporation, 1970), p. .

이디어를 探索한다든가 그 밖에 어떤 資料로서 利用할 目的이 아니라면——例를들어 講義 準備을 爲하여 利用된다면——그것을 調査活動(research activity)이라고 할수는 없다.

이와같이 調査問題가 새로운 것을 創意的인 것 또는 創造的인 것이라는 말로 一般的으로 表現하고 있다. 이러한 表現에는 그 問題形成에 있어서 模倣이라든가 他人의 調査結果를 盜用하는 것 등을 除外한다는 뜻이 強하게 包含되어있다. 그러한 까닭에 가령 外國의 學者들이 새롭게 開發한 어떠한 技術이나 方法을 우리나라에 導入適用한다는 것은——그것이 不必要하다는 것이 아니라——**創意性(originality)**이라는 면에서는 높게 評價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外國의 學者가 提示한 理論이나 理論模型으로 우리나라의 어떠한 現象을 說明한다는 것도 비록 그것이 그 理論의 妥當性を 確認(confirm)하기 爲한 것이라 할지라도 **創意性**이라는 면에서는 亦是 높은것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그 理論의 出現 自 現象에 關한 問題는 이미 解答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體가 그 이 경우 우리나라의 立場에서는 說明되지 않은 現象, 따라서 說明을 要하는 問題가 비로소 解決되었다는 점에서 副次的인 **創意性**을 認定하여도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故로 그러한 外國學者의 理論模型의 變更의 試圖같은 것은 **創意性**을 當然히 認定할 수 있다. 그러나 單純한 方法이나 技術 또는 理論의 理解, 所介, 導入, 適用같은 것은 그것이 우리의 科學의 向上이나 生活의 向上에 貢獻이 크나 하더라도 **創意性(originality)**은 認定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特定現象에 대하여 새로운 觀點이나 立場을 提示한다든가 또는 그렇게 하기 爲하여 材料를 再組織하는 作業은 充分히 **創意性**을 認定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問題가 되는 것은 特定的한 問題가 이미 成功的으로 研究되었느냐 與否를 識別한다는 것이 容易한 일이 아니라는 事實이다. 그가 研究할 價値가 있다고 判斷한 問題가 이미 成功的으로 研究되었는지 여부를 안다는 것은 容易한 일이 아니다. 特히 近者에 와서는 다른 分野에 있어서도 그러하나 社會科學分野에 있어서의 研究活動과 이에 對한 報告書는 幾何級數의으로 增加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分野의 學者가 그 分野의 文獻을 全部 읽는다는 것은 不可能한 일이며 그 程度는 더욱 더 深化되리라는 것을 豫測하기 어렵지 않다. 故로 重要的한 것은 그가 研究하고자 하는 問題의 分野에 對한 基本的인 知識이 있다는 것을 前提로 하고 다시 그 問題가 所屬되는 細部分野의 諸 研究結果에 關하여 相當한 조해가 있어야 한다는 點이다. 行政學分野에 關하여 例를들면 行政學一般에 關한 基礎知識이 있고 다시 그가 研究하고자 하는 問題, 例를들면 住民參與問題라든가 行政區域 또는 士氣等の 問題에 關한 國內外的인 研究에 對한 相當한 조해를 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住民參與라든가 士氣問題같은 것에 關한 研究自體가 하나의 巨大한 分野化되어 가고 있다는 事實도 重要視하여야 한다. 即 細部分野가 다시 細分化 또는 專門化되어가는 傾向에 있다는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는 書誌學(bibliography)의 役割이 더욱 더 커질 것으로 본다.

2) 試驗可能性(testability)

科學的 調査에서 取扱하는 問題가 日常生活에서 提起된 問題와 또 하나의 다른 點은 그것을 試驗할 수 있다는 點이다. 여기서 試驗할 수 있다(testable)는 말은 그 問題에 對한 解答이 可能하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그 問題를 科學的 調査에서 取扱할 수 있기 爲하여는 그것의 事實 여부를 어떠한 基準에 依하여 判斷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今世紀의 世界的 危機는 根柢적으로 人類의 貪慾에서 부터 造成되어 가고 있다.』 이와같은 命題의 事實여부는 어떠한 基準에 依하여서 이든 判斷할 수가 없다. 그 말을 듣는 어떤 사람들의 희미한 共感を 불러 일으킬 수 있을지는 모르나 적어도 科學의 世界에서는 아마 고개만 갠우뚱하는 反應만 있는 것이다. 「道德의 타락은 水素爆彈보다도 더욱 무서운 威力으로 人類를 滅亡시킬 것이다」라는 말도 亦是 마찬가지이다. 이와같은 命題들은 于先 그러한 命題에 內包되어 있는 여러 概念들과 그러한 概念들의 連結들이 모호하여서 科學의 世界에서는 어떠한 意味를 傳達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今世紀, 世界的 危機, 人類의 貪慾, 危機의 造成, 道德의 타락, 人類의 滅亡, 水素爆彈보다 무서운 威力 등의 概念들은 너무나 모호하고 또한 多樣하게 解釋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것을 試驗可能한 命題로 再構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多樣한 結果가 나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墓를 잘 써야 子孫이 繁榮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는 등의 말은 無理하게 科學的 問題로 再構成할 수 없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말들은 現在에 이르러서는 例를 들면 祖上을 恭敬하라, 집안에서 婦인이 男便을 支配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式의 어떠한 主張이나 非難을 하는 意味로 使用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主張이나 非難은 亦是 科學的 調査의 問題가 될 수 없다.

科學的 調査에서 取扱하는 問題가 되기 爲하여는 그 問題가 提示하는 質問에 對답이 可能하여야 하며 이러한 對답은 窮極의 으로는 「그렇다」 또는 「아니다」(true or false)를 判斷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卽 그 問題 또는 그 問題에 對한 潛在的인(potential) 또는 暫定的인(tentative) 對답 또는 解決策이라고 말할 수 있는 假說이 操作的으로 構成되어 있거나 構成될 수 있어서 그것이 指示하는 事實 또는 資料(Data)에 依하여 그 問題의 眞偽를 判斷할 수 있을 때 그 問題는 試驗可能한 것이며(testable) 따라서 科學的 調査에서 取扱할 수 있는 問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이 指示하는 事實 또는 資料는 그 問題에 對한 對답과 關聯되어(relevant) 있어야 함은 當然한 것이다. 例를 들어 「獨裁者의 身長은 그 國民의 平均身長보다 작은가?」라는 問題에 對하여 「獨裁者의 態도의 特徵의 하나는 權威主義的이다」라고 對답하였다면 이 對답 自體는 아마 眞實할지도 모르나 問題에 對하여 關聯이 없는(irrelevant) 對답이다. 여기서 關聯이 있다는(relevant) 말은 그 問題에 對한 對답(假說的인 境過에 있어서도)을 土臺로 推定(inference)이 可能하여야 하며 이와같은 推定の 結果로서 그 問題에 對한 對답이나 解決策을 構成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科學的 調査에서 取扱하는 大部分의 問題는 嚴格히 말해서 單純히 眞僞式으로만 對답할 수 있는 境過가 많다. 例를 들어 前述한 「獨裁者의 身長은 그나라 國民의 平均身長

보다 작은가?」라는 問題의 境遇에 있어서도 單純히 그 말이 絶對적으로 例外없이 옳다 또는 絶對적으로 例外없이 틀린다는 式의 對答은 아마 不可能할 것이다. 이 地球 歷史上 獨裁者라고 分類된 사람들 中에는 그러한 分類가 可能하다 하더라도 몇 사람 또는 몇 퍼센트 程度의 例外는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一般的으로」 또는 「大體로」 또는 「10中 8.9는」 또는 「어떠한 傾向」이라는 表現으로 代置한다. 또한 어떠한 人物을 獨裁者라고 規定짓는다는 것도 容容한 일은 아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도 極端的인 獨裁者에서 부터 어느 程度 또는 若干 獨裁的인 統治者에 이르는 多樣한 階級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前述한 絶對的 眞僞의 基準은 蓋然性(probability)의 基準으로 代置하는 것이 適切한 경우가 許多하다. 卽 어떠한 問題가 試驗可能하고 따라서 科學的 調查에서 取級하는 問題가 될 수 있기 爲하여는 그것의 蓋然性의 程度(a degree of probability)를 決定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1) 그 問題로 부터 適切한(relevant) 假設을 作成할 수 있고 (2) 그러한 假設의 妥當性을 蓋然性의 程度에 依하여 決定할 수 있다면 그 問題는 試驗可能하고 따라서 科學的 調查에서 取扱할 수 있는 問題가 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試驗可能性은 勿論 그것을 試驗하기 爲한 調查技術의 利用可能性을 前提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現在의 調查技術의 發達水準으로서로는 不可能하지만 將次的 調查技術의 發展을 前提로 한 試驗可能한 問題를 排除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3) 道義的 配慮

調查問題 決定에 있어서 前述한 두가지 基準에 맞는다 하더라도 現實적으로 考慮하여야 할 많은 問題들이 있다. 中의 하나가 道義的 配慮(ethical consideration)이다.

여기에 두가지 論理的으로 相反되는 部類의 科學者의 信條가 있다. 하나는 「모든 科學者는 어느 分이라도 研究할 權利가 있다.」 卽 모든 科學的 研究의 結果는 그것을 願하는 모든 사람이 利用할 수 있어야 한다는 等의 것이고 또 하나는 모든 科學的 研究의 結果는——純粹科學을 信奉하는 科學者까지 包含하여—— 人類의 福祉 또는 幸福에 直接 間接으로 貢獻하여야 된다는 信條이다. 勿論 大部分의 科學者들이 調查問題를 選定할 때에 그 調查의 結果가 直接 間接으로 人類의 生活에 어떠한 意味를 갖는다는 것을 짐작하는 것은 事實이다. 그러나 어떠한 問題는 不幸히도 그것이 人類나 社會에 有益할 것인지 有害할 것인지를 判斷하고 決定하는 것이 그 科學者의 일만은 아니라는 點이 남아있다. 또한 나아가서 調查者는 그 問題를 調查하는 過程에 있어서 겪어야 할 일들을 大部分은 짐작한다. 이와같은 境遇에 있어서도 個人的 私生活(privacy)을 侵犯하게 된다는가 調查對象者가 身體적으로 또는 精神적으로 侵害를 입을수도 있다는 事實도 알게 된다는 것이며 特히 이點은 오래 前부터 科學世界에서도 큰 爭點의 하나가 되어 있다.⁽³⁾ 또한 그의 研究는 오히려 敵國을 利

(3) Gideo i Sjoberg & Roger Nett, *A Methodology for Social Research* (N.Y.: Harper & Row, 1968), pp. 97-128.

롭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勿論 이와같은 諸事實들은 그것이 科學的 調查——學問의 中立 또는 學問의 自由라는 立場에서는——의 配慮事項이 아니라 하더라도, 科學者도 社會와 떨어져서 살아가는 存在가 아니라는 事實을 받아들인다면은 科學者는 社會人으로서의 높은 水準의 倫理意識이 要求된다.

또 한가지 考慮하여야 할 點은 調查者가 處하여 있는 立場과 調査에 所要되는 費用, 時間, 努力, 裝備, 人力, 그리고 調査對象이 處하여 있는 事情,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調査를 成功的으로 遂行할 수 있는 能力 등에 關하여 考慮하지 않은 問題의 選擇은 亦是 賢명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 이것은 應用調査의 境遇는 더우기 無視할 수 없는 事項들이다. 例를 들면 한달에 40萬圓의 收入이 있는 7人 家族——祖母, 父母, 男女 高校生 各各一人과 女中學生 國民學校에 다니는 아들——의 집을 짓기 爲하여 適切한 房의 數와 크기를 算出하는데 所要되는 費用이 建築費보다 많다면 嬉笑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勿論 이와같은 境遇에 있어서도 그 調査의 結果를 그 建築의 境遇뿐만 아니라 그 社會의 다른 部分에도 適用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야기는 다르지만 말이다).

參考로 E. Allen라는 사람이 1959年 4月과 5월에 美國 國立健康研究所(National Institute of Health)에 提出된 研究費申請中 15人 내지 20人의 그 分野의 科學者들의 審議에서 拒絕된 605件의 研究計劃의 결함을 分類한 것이다. 그는 그 研究計劃의 缺함으로 指摘된 것을 다음과 같은 네가지 카테고리로 分類하였다. 하나는 問題自體가 適切하지 않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그것이 重要하지 않거나 不分明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方法 또는 아프로—치에 결함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研究者의 研究能力, 말하자면 科學的判斷이나 技術的인 熟練의 不足 그리고 마지막으로 其他 카테고리로서 研究가 이루어지기 爲한 事情을 들고 있다.⁽⁴⁾

첫째 카테고리(問題) 58%

1. 二 問題는 重要하지 않거나 어떤 有用한 知識을 産出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33.1%
2. 二 研究計劃은 제대로 立證되지 않은(insufficient evidence)假說에 立脚하고 있거나 疑心스러운 또는 確定치 않은 假說에 基礎를 두고 있다.8.9%
3. 二 問題는 調査者가 생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復雜하다.8.1%
4. 二 問題는 特定地域에 限定된 것이거나 健康과 關聯된 一般分野內에 充分히 그리고 明白하게 들어 가지 않는다.4.8%
5. 二 問題는 科學的으로 未熟하거나 探索의 研究段階에 있다.3.1%
6. 二 研究計劃은 同時에 研究를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要素들을 包含하고 있다. ...3.0%
7. 二 研究計劃은 그 意義나 研究目的이 너무나 不透明하다.

둘째 카테고리(方法) 73%

8. 試驗, 方法, 節次는 研究目的達成에 適合하지 않다.34.7%

(4) Allen, E. Why are research grant applications disapproved? *Science*, 1960, 132.

9. 研究方法에 對한 說明이 너무나 莫然하고 不分明하여 評價하기가 어렵다. …28.8%
10. 그 研究를 위한 全體的인 計劃이 綿密하게 檢討되어있지 않다. …14.7%
11. 그 方法에 對한 統計의 局面에 對한 配慮가 不充分하다. … 8.1%
12. 그 方法은 科學的 思考가 결핍되어 있다. … 7.4%
13. 統制 方案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 6.4%
14. 調査者가 提示한 資料는 研究目的에 맞지 않거나 求하기가 힘들다. … 3.8%
15. 觀察 回數가 不適切하다. … 2.5%
16. 調査者가 생각하는 器具는 낡은 것이거나 適切하지 않다. … 1.0%

셋째 카테고리(調査者の 能力) 53%

17. 調査者는 이 調査의 能力이나 教育 또는 經驗이 결핍되어 있다. …32.6%
18. 調査者는 最近의 關聯文獻이나 方法에 接하지 못하고 있다. …13.7%
19. 調査者의 이 分野에 對한 最近의 研究報告書는 이 研究에 自信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12.6%
20. 調査者는 充分한 經驗이 없는 同僚들에게 너무나 依持하려고 한다. … 5.0%
21. 調査者는 너무 여러가지 研究에 關與하고 있다. … 3.8%
22. 調査者는 그 分野 또는 關聯分野의 同僚들과 좀 더 尤대를 가질 必要가 있다. … 1.7%

넷째 카테고리(기타) 16%

23. 裝備 + 人員의 要求가 非現實的이다. …10.1%
24. 調査者는 다른 任務때문에 時間과 關心을 充分히 할애할 수 없다. … 3.0%
25. 研究 機關의 環境이 좋지 않다. … 2.3%
26. 現在의 研究費로서 그 研究를 하는데 足하다. … 1.5%

3. 調査問題의 選定과 學科的價値

科學者가 調査問題를 選定함에 있어서 理想的으로는 그가 願하는 如何한 問題도 選擇할 수 있는 自由를 享有한다. 그러나 그는 같은 條件이라면 科學的 知識의 增進에 가장 貢獻하는 問題를 選擇하여야 한다는 科學世界의 倫理規範의 壓力을 받는다. 同時에 그는 前述한 바와 같이 社會的 倫理規範에 依하여서도 影響을 받으며 其他 政治的, 文化的 諸要因에 依한 여러 制約도 現實的으로 避할 수 없다는 것이 事實이다.

여기서 問題視하고자 하는 바는 調査問題形成에 있어서 前述한 創意性(originality)이라든가 試驗可能性(testability) 또는 倫理라든가 其他 現實的인 여러 事項들에 執着한 나머지 자칫하면 그 問題가 그 學問分野의 全體的인 脈絡(context)에서의 位置라든가 意義(significance)를 等閑視할 우려가 있다는 點——이러한 傾向은 應用調査에 경우가 더욱 甚한 것 같다——과 또 하나는 그 問題의 一般化 可能性에 關한 點이다. 前者는 大體로 學術的

價値(academic value)에 關한 問題이며 또 하나는 一般化의 範圍 또는 代表性에 關한 問題로서 共히 調查問題形成에 있어 充分히 配慮하여야 할 點들이다.

勿論 研究調查의 分野(field)가 選定되었다는 것이 곧 調查의 問題가 形成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이와같은 性急한 誤解는 特히 學位論文을 쓰고자 하는 學生들 間에 많은 것 같다. 事實은 그가 쓰고자 하는 分野가 아무리 細分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決코 調查問題의 形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例를들어 「公務員勞組」「地方公務員의 士氣」「教育稅」「里長의 leadership」「賃貸住宅制度」 등은 그 自體로서 調查問題가 形成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왜니하면 우리는 「公務員勞組」의 境遇, 公務員勞動組合의 概念을 提示하려는 것인지 그러한 公務員勞組의 組織과 機能을 記述 紹介하려고 하는 것인지 公務員勞組의 沿革 또는 歷史를 記述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는 公務員勞組에서 一般的인 教科書式的 記述을 試圖하고자 하는 것인지 또는 公務員勞組의 必要性을 強調하려고 하는 것인지 反對로 公務員勞組의 弊端을 列擧하려고 하는 것인지 公務員勞組의 運營現況을 提示하려고 하는 것인지 公務員勞組의 存在와 行政能率과의 關係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公務員勞組의 分類를 試圖하려고 하는 것인지 公務員勞組과 公務員의 勤務條件과의 關係를 규명하려고 하는 것인지 等等 無數한 細部分野와 問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問題의 形成에 있어서 그가 調查하고자 하는 問題의 그 分野와 學問體系에 있어서의 位置와 그 學問體系內에 있어서의 意義(significance)는 充分히 配慮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勿論 自己가 하는 研究는 보잘 것 없는 따라서 學術的 價値가 거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學者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勿論 어떠한 研究機關에서 願하지 않는 研究課題를 負課받은 경우라든가 큰 合同研究에서 그 研究의 核心部分에서 벗어난 작은 課題를 맡은 경우 등은 除外로 하고 말이다.

一般적으로 學術的 價値가 크다는 말은 두가지 뜻을 갖는 것 같다. 하나는 그것이 記述的인 調査이건 說明的인 調査이건 間에 그 問題를 調查하기가 技術的으로 또는 다른 理由에서 어려운 경우이다. 또 하나는 그 問題에 對한 調查의 結果에 含蓄된 바의 것이(implication) 큰 경우이다. 여기서 含蓄性이 크다는 것은 그것의 說明水準이 높아서 學術的으로나 또는 實生活에의 適用이라는 면에서 多樣하고 廣範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할것은 特히 行政學分野의 問題에 흔히 엿볼 수 있는 것으로서 어떠한 問題(例를 들면 어떠한 事例調査)는 그 問題의 解決自體에만 適用이 可能하고 다른 곳에는 全然 適用이 안된다 하더라도(그러한 경우를 想像하기 어렵지만) 그 問題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또는 重要하기 때문에 그것의 價値를 認定하여야 되지 않느냐 하는 問題이다. 例를 들면 死燒을 허덕이던 어린 젊은 大統領의 病因과 治療방법을 模索한다든가, 韓國의 太白山地域의 開發을 爲한 어느 唯獨한(unique)한 問題를 調查한다든가, 우리나라의 獨特한 問題를 解決하기 爲한 行政機關을 設置한다는 問題 등이 그것이다. 勿論 여기에 例示한 여러가지 問題들은 大部分 既存知識의 應用이라는 것이 되겠으나 그러한 問題들을 解決한 調查의 結果가 全然 應用的

價値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調査의 結果의 價値는 높게 認定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때 價値는 첫째로 그 社會에의 貢獻이라는 立場에서 이며, 둘째로는 그 問題의 調査가 方法上 또는 技術的으로 어려운 것 이었기 때문이다. 事實上 科學的 活動의 窮極的인 目標은 知識의 增進을 통한 人類의 幸福에의 貢獻이며 따라서 이것은 科學的 調査의 評價基準이 될 수 있는 것이다. 上述한 몇가지 獨特한 境遇는 따라서 그 社會에의 貢獻이라는 立場에서 그리고 技術的인 어려움이라는 立場에서 마치 心臟移植手術의 경우 처럼 그 價値를 認定하여야 할 것이다. 이때 이러한 價値는 學術的價値가 아니라 實際的價値(practical value)라고 主張할 수 없는 바의 것은 아니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것을 主張하는 사람이 어떠한 立場에서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며 결국은 純粹科學對 應用科學의 論爭과 같다.

여기서 또 한가지 問題가 되는것은 調査問題 A와 調査問題 B間에 어느것이 學術的價値가 큰 것이냐 하는 問題이다. 勿論 이때 그 調査結果의 妥當性이나 信賴性같은 問題는 論外로 하고 말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모든 科學者는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自己의 研究가 重要하고 價値있는 것으로 確信하고 調査問題를 選定한다. 即 이것은 어디까지나 個人的 主觀的 問題에 屬한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現實的으로 前述 한바와 같이 어떠한 問題는 그것이 價値가 있다고 하여 研究費申請에서 通過되고 어떠한 問題는 重要하지 않다는 理由로 拒絶當하고 있다. H. Simon의 研究는 노벨賞을 타고 다른 學者들의 研究는 노벨賞審査에서 脫落되었다. 어떤 學生은 學位論文에서 A를 받고 다른 學生은 C를 받거나 通過가 拒絶되고 있다. 勿論 이와같은 調査結果를 審査할 때에는 前述한 創意性(originality)이라든가 試驗可能性(testability) 또는 그밖에 科學的方法의 諸節次를 제대로 遵守하였느냐 하는것이 審査의 基準이 된다는 것은 事實이나, 그밖에 審査하는 사람들의 趣向이라든가 流行 또는 時事性같은 것도 影響을 주는것 같다. 要는 그 問題의 價値는 主觀的인 것이기는 하나 前述한 審査를 包含하여 社會的 評價의 基準도——極히 애매하고 流動적인 것이기는 하나——存在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社會的 評價의 窮極的인 基準은——亦是 애매하고 流動적이기는 하나——知識의 增進, 人類의 幸福에의 貢獻, 人類의 福祉向上等이다. 그러나 어느것이 보다 더 知識의 增進, 人類의 幸福에 貢獻하느냐 하는 것을 判斷하는 것은 結局 그 것을 評價하는 사람들의 主觀에 달려 있다.

결으로 이와같은 學術的 價値에 關하여 指摘하고 넘어갈 것이 있다. 그것은 그 問題가 包括하는 範圍에 關한 問題이다. 여기에 두가지 傾向이 있는 것 같다. 하나는 그것이 包括하는 範圍가 클수록 換言하면 一般化的 範圍가 클수록 學術的으로 價値가 있다는 傾向이고, 또 하나는 前述한 바와 같이 그 範圍보다는 그 調査問題가 內包하는 經驗的指示(empirical referents)가 確固할수록 보다 더 科學的이라고 생각하는 傾向이다. 그리하여 后者는 前者를 구름잡는 이 야기를 한다고 그 學術的 價値를 깎아내리고 前者는 后者를 사소한 問題를 取扱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正確하게 말하여 巨視的 接近(macro-approach)對 微視的 接近(micro-

approach)과는 그 뜻이 다르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取扱하는 對象의 容積(volume)을 말한다. 例컨대 들면 몽테스키우는 그의 「法の 精神」에서 若干 애매한 點이 있기는 하나 大體로 社會體系의 統合性에 關한 것을 다루고 있다. 歷史上 여러 社會에서 採用하고 있는 政治體制, 法, 習慣이 相互依存性을 나타내고 있다는 事實에 着眼하며 그 相互依存性이 生成되는 根據의 分析을 試圖하였고 오늘날의 構造機能主義의 先驅의 役割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Max Weber의 「프로테스탄티즘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도 그 範圍는 全體社會이다. 그는 近代社會가 어느 時點에서 如何히 하나의 큰 變化를 가져왔는지에 關하여 說明을 試圖하고 있다. 卽 그의 有名한 資本主義의 誕生이 어떻게 可能하였는가를 說明하고 있다. 16世紀 以前에도 西歐社會는 高利貸金이라든가, 市場制度같은 現象이 存在하고 있었다. 그러나 16世紀 以後의 西歐社會의 特徵이라고 할 수 있는 投資라든가 資本의 蓄積과 같은 現象은 다른 社會에서는 一般化되어 있지는 않았다. Weber는 이에 對하여 資本主義의 企業家를 支配하고 있는 價値와 프로테스탄티즘에서 비롯되는 資本主義에서 由來하는 價値間에 對應關係가 存在하고 있을 指摘하고 있다. 그밖에 가령 Tocqueville 또는 近者에 Talcott Parsons의 The social system 등은 그 對象이 全社會이다. 이에 對하여 研究對象이 個人이나 個人과 環境 또는 그 中間에 該當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制度, 組織, 集團, 또는 어떠한 地域의 社會가 그 研究對象인 경우가 있다. 이러한 部類의 調査研究은 여기서 例를 들을 必要가 없으리라고 본다. 이러한 部類의 研究에 있어서 事實上 學術的 價値의 優劣을 判斷하고자 하는 것은 大體로 無意味한 것으로 본다. 다만 全社會를 對象으로 하는 巨大한 一般化는 그러한 一般化의 基礎가 되는 資料들이 妥當性이라든가 그러한 觀察力이나 着想 또는 아이디어를 重要視하여 여기에 그 價値를 認定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오히려 그러한 着想이나 觀察를 可能하게 하는 것은 老鍊한 識見과 오랜 經驗을 通하여서만 一般的으로 可能한 것이라는 點에서 그리고 비록 그러한 巨大한 一般化(gross generalization)가 嚴格한 意味에서 假說的說明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Darwin의 進化論과 같은 높은 水準의 說明能力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無數한 研究問題를 提示한다는 意味에서 높게 評價하여야 함은 當然한 것이다. 그러나 이 말은 그 對象이 個人이나 集團 또는 制度라고 하는 事實이 前者보다 學術的價値가 떨어진다는 뜻은 決코 아니다. 前述한 노벨 賞을 받은 H. Simon의 研究對象도 個人과 集團이었으며 有名한 Hawthorne study도 그리고 S.A. Stoaffer의 American Soldiers도 W.F. Whyte의 Street Corner Society도 그 調査의 對象은 個人, 集團, 過程等이었다. 要는 山의 全體의인 模樣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重要하지만 그 山속에 무엇이 있으며 山속의 여러가지 事物들이 어떠한 狀態인가에 關한 知識도 重要하다.

4. 調査問題의 소오스

좋은 調査問題를 選擇하기 爲하여 考慮하여야 할 또 한가지 事實은 一般的으로 科學者들

이 特定 問題를 選擇하거나 또는 特定分野의 問題에만 專念하게 된 背景을 살펴 보는 일일 것이다.

勿論 學者들이 偶然한(accidental) 契機에 어떠한 問題에 着想하게 되었다는 事實도 많다. 例를 들면 前述한 Willian F. Whyte는 그의 Street corner society에서 Boston의 卍太利 貧民街에 차패들을 偶然한 機會에 만나게 되었다는 事實을 記述하고 있다. 또한 C.K. Yang 教授가 A Chinese Village in Early Communist Transition⁽⁵⁾을 發刊하게 된 것도 事實은 偶然한 契機에서 었다. 그는 共產黨의 支配以前에 中國의 廣東地域의 어떤 마을에 어떤 種類의 現地調사를 計劃하고 있었으며 이때 그의 學生들은 아무도 共產黨이 그 部落을 支配하게 된 것이라든가 새로운 支配者가 그로 하여금 그 部落에 남아서 傳統의인 生活樣式이 共產主義的 生活樣式으로 變化되어가는 劇的인 事實들을 記錄할 수 있도록 許可될 수 있을지 全然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후에 그 部落을 劇的으로 脫出할 機會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그리고 그 후에 그 冊을 出刊할 수 있게 되리라고는 全然 豫想하지 않았는 偶然한 일이었다. 또한 研究途中에 偶然히 즉 Hawthorn study에서 informal group의 存在에 着眼하듯이 어떠한 問題를 着眼하게 될 수도 있으며 所謂 Serendipity라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如何한 程度에 있어서 그러한 着想이 적어도 學術的 價値(academic value)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程度의 基礎知識을 必要로 한다는 것이다. 科學的 社會化(scientific socialization)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한사람 科學者가 되기 爲한 訓練 또는 形像이 造成되는것(molding)을 말한다. 그리하여 그는 그가 屬하는 分野의 科學者들이 무엇에 關心을 表明하고 무엇을 重要視하고 무엇을 無視하고 누가 重要한 人物이고 그의 主要研究는 어떠한 것인가에 關하여 그리고 그 世界에서의 秩序와 慣習을 體得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卽 偶然히 어떠한 問題에 關한 着친은 事實은 大部分 이러한 基礎知識과 어느程度의 科學的 社會化를 前提로 한 產物인 것이다. 똑같은 事實을 觀察함에 있어서도 그러한 基礎知識이 없고 社會化가 이루어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사이에는 顯격한 差異가 있다. 例를 들면 똑 같은 新聞의 求人廣告를 보고 한 사람은 그것이 우리나라의 產業構造의 變遷의 한 證據 또는 指標를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은 單純히 自己의 職場보다 收入이 좋은 것인지 여부만을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一般的으로는 調查研究의 問題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Source가 그 大宗을 이룬다. 卽 于先 그 分野의 既存知識體系 그리고 社會的 要請 셋체는 그 社會의 社會的 價値 그리고 個人의 獨特한 經驗과 趣向等이다.

1) 既存知識體系

調查問題를 着想하는 例는 그 分野의 既存知識體系에서 가장 많다는 것은 異論의 餘지가

(5) C.K. Yang, *A Chinese Village in Early Communist Transition*(Cambridge, Mass: Technology Press 1959).

없다. 거령 行政學分野에 對한 一般的인 基礎知識을 體得하면 大體로 그중에서 어떠한 分野에 對하여 보다더 興味나 關心을 갖이게 되고 나아가서 그러한 分野에서 어떠한 問題를 着想하게 되는 것이 아마 가장 普遍的인 過程일것이다. 이때에는 大體로 論理的인 演釋에 依하여 새로운 問題가 着想된다. 例를들면 Communication研究에 依하여 opinion leader의 存在가 承認되었다. 또 이들은 一般的으로 다른 同僚들과 같으나 教育과 社會的地位가 若干 높다. 또는 그들은 그들의 同僚보다 消息을 잘듣고(well informed) 보다더 積極的이다 라는 事實들이 밝혀졌다고 하자. 그러면 이와같은 知識을 土臺로 여러가지 問題를 提起할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 內容(topic)에 따라서 opinion leader는 다른 것인가? 例를 들면 大體로 政治問題에 對한 opinion leader가 拳鬪에 對한 opinion leader인가? 또는 opinion leader들이 갖이는 그밖의 共通點은 뭇인가? 家庭에 있어서의 opinion leader와 官廳과 같은 會式 組織體에 있어서의 opinion leader는 그 役割에 있어서 뭇이 相異한가? 公式組織體의 上位 職級者들間的 opinion leader는 下位職級者들의 opinion leader와 그 役割이나 影響을 미치는 程度에 어떠한 差異가 있는가? 等等 無數한 問題들을 導出할수 있다. F.J. McGuigan은 問題가 提示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提示하고 있다.⁽⁶⁾ 卽 어떤 分野에 對한 知識의 量이 있을 때, 둘째는 調查結果가 상치될 때, 그리고 셋째는 어떠한 事實이 우리의 知識과 無關하게(isolated)存在할 때 또는 그 事實을 說明하고자 할 때 等이다. 이러한 세가지 境過는 結局 既知知識體系에서 問題가 造成된 것이라고 할수있다.

2) 社會的 要請

이 경우는 大體로 應用調查問題의 境遇가 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본다. 例를 들면 政府나 어떠한 集團의 特定分野에 對한 調查研究의 권장이다. 이러한 권장이나 要請은 大體로 現在 國家的으로 또는 社會的으로 어떠한 實際的인 困難한 事實들이 惹起되었거나 惹起될 可能性을 豫見할 때에 提起된다. 例를들면 世界的인 에너지 危機에 當面하여 에너지 節約을 爲한 또는 石油代替에너지의 開發을 爲한 研究를 많은 國家에서 要請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例外는 아니며 太陽나지를 利用하기 爲한 問題들을 研究할 것을 要請하고 있다. 食糧이 甚히 不足하였던 우리나라는 米穀의 增産을 爲한 品種改良等の 問題에 調查研究를 強하게 要請하고 있다. 또한 社會科學分野에서는 人口의 爆發을 抑制하기 爲한 研究라든가, 越南의 敗亡에 刺戟받아 75년부터 不正腐敗에 關한 研究가 社會的으로 要請되어 왔었고 大都市의 人口集中에 수반되는 여러가지 都市整備와 關聯되는 研究, 새마을事業을 中心으로 하는 여러가지 地域社會 또는 農村社會開發에 關한 研究 等은 거의가 前述한 바와 같이 現實的인 困難과 需要에 따라서 社會的인 要請에 依하여 調查問題들이 탄생한 것들이다. 이러한 諸 경우에 있어서도 科學者들은 같은 條件이라면 그리고 可能하다면 前述한바와 같이 學術的인 價値가 큰 것을 選擇하거나 問題를 學術的價値가 크도록 形成하여야 함은 再言을 要하지

(6) F. J. McGuigan, *Experimental Psychology* (New Jersey: Prentice-Hall, 1978), pp. 21-27.

않을 것이다.

3) 社會的 價値와 規範

여기서 社會的 規範과 價値란 그 社會의 社會的 傳統的 文化的 諸價値에서 오는 영향을 總稱한 것이다. 卽 科學者는 그 社會의 構成分子이며 따라서 그 社會의 社會的 規範이나 諸價値에서 벗어날 수는 없으며 이러한 事實은 研究問題의 選定에 있어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例를 들면 民主主義나 自由를 信奉하는 美國에서 輿論調査와 같은 態度調査가 發展되었으며 反對로 privacy를 重要視하는 美國에서는 이러한 個人的 privacy를 侵害하는 種類의 調査는 taboo視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령 政治的 態度에 關한 調査는 taboo視되어 있어서 事實上 選舉豫測을 爲한 調査問題는 別로 다루지 않는것 같다. Walter Laqueur는 二次世界大戰이 끝난지 17年後인 1962년에 「소聯에서는 나치政權, 나치의 政黨 그들의 指導者, 그들의 秘密경찰 게스타포, 그들의 強制收容所 等に 關한 冊은 하나도 發刊된 것이 없다. — 嚴格하게 말하여(講義같은 것을 除外하고는) 그 時期를 커버하는 독일歷史조차 없다」⁽⁷⁾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諸事實들은 그나라의 社會的 價値나 規範이 어떠한 分野의 調査와 研究를 制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아마 共產社會에서는 自由로운 輿論調査같은 것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社會的 價値와 規範은 어떠한 分野에 對한 調査를 권장하고 어떠한 問題에 對한 調査를 制限하는 것이다.

4) 個人的 趣向과 經驗

앞에서 個人이 偶然히 어떠한 重要的 問題를 着想할 수 있으나 그것은 大部分 그의 그 分野에 對한 基礎知識을 前提로 한다고 말한바 있다. 이것은 그가 前述한 科學的 社會化的 過程에서 얻은 어떠한 經驗이 偶然의 事實과 一致하여서 얻는 所産이다. 말하자면 그의 趣向이나 經驗이 他人에게는 아무런 意味가 없는 事實이나 事件들로부터 또는 어떠한 書籍이나 對答에서 學術적으로 意味있는 卽 學術的價値가 있는 意味를 附與한다는 것이다. Thomas Huxley는 Darwin의 Origin of Species를 읽자 마자 「참 니도 바보도군, 그것도 생각못하다니!」하고 말하였다 한다. 이것이 事實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럴듯한 이야기임은 틀림없다. 卽 Darwin은 적어도 二世紀前부터 여러 事實들을 收錄하였으며 그밖에 그의 有名한 H.M.S. Beagle號의 四時間의 航海에서 얻은 여러 觀察結果를 附加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그와같은 莫大한 資料들은 아무런 體系的인 秩序를 이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Thomas Malthus의 見解 卽 人口의 增加를 抑制하지 않으면 食糧이 不足할것이라는 見解를 읽고서 Darwin의 種이 變化하는 原因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한 생각은 生物은 서로 다른 것을 잡아먹고 산다는 事實에 着眼하게 되었고 다시 이러한 着眼은 生物은 어떤 方向으로 變하면 有利하고 어떤 方向으로 變하면 生存에 不利할것이라는 事實에 까지 이르

(7) Walter Laqueur, "Russia and Germany" Survey no. 44 45 (1962).

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은 Darwin의 다른 知識과 結付되어서 마침내 種의 生存鬭爭 (struggle for survival of the species)이라는 grand theory를 着想하게 된것이다. 勿論 이러한 發表가 있는 後에 激熱한 科學的 論爭이 있었으나 結局은 그러한 說明이 科學世界的 是認을 받게 되었다. Huxley는 아마 단순히 「누구든지 그것을 알수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의쳤을 것이니, Columbus의 달걀 이야기와 一脈相通하는 點이 있다.

勿論 그 외에도 어떠한 個人的인 特定한 事件이라든가 어떠한 빠져린 經驗때문에 特定한 分野의 特定한 問題의 研究에 平生을 沒頭하게 한 事例도 많이 있다.

重要한 것은 人間의 그 知識과 關心 또는 職業等에 따라서 選擇의으로 事物을 觀察한다는 것은 일러진 事實이기는 하나 어떠한 事實이나 見解에 意義있는 意味를 부여하는 訓練인 것이다.

끝으로 아가지 指摘하고 싶은 것은 結局 좋은 問題를 選定하고 形成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를 發見하는 일이라는 點이다. 이러한 아이디어中 特히 기발한 것은 우리의 經驗이나 知識에 비추어 正常的인 것이 아닌 換言하면 우리의 期待와는 相異한 事物을 發見할때에 나타나는 어떠한 好奇心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事實이다. 이때 이와같은 好奇心이 單純한 好奇心에 그친다면은 重要한 機會를 놓치고 마는 結果가 된다. 故로 이와같은 好奇心을 充足시키고야 말겠다는 강한 探究意欲이 隨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에 못지 않게 重要한 것은 우리의 經驗이나 知識에 비추어 極히 正常的으로 보이는 事實에서도 또는 아무런 異常이 없는 것으로서 오랫동안 겪어온 事實中에서도 相異한 觀點이나 反對되는 說明이 可能한지 여부를 打診하여보는 態度이다. 이것은 마치 行政官廳에서 公務員들이 오랫동안 답습하여 오던 어떠한 日常的業務處理方法을 어떠한 다른 方法으로 바꾸면 더욱 效果的일 것이라는 생각에서 많은 業務의 改善이 이루어 지는 경우와 유사하다. 우리는 칼로 鉛筆을 짤때 칼을 엄지손가락으로 밖으로 밀어 내면서 짤는다. 그러나 西洋사람들은 그 反對로 짤는다. 또 우리는 住所를 쓸때 市道를 먼저 쓰고 마지막에 番地를 쓰나 西洋사람은 番地를 먼저 쓴다. 西洋사람들은 종이에 筆記를 할때 왼쪽위에서 부터 오른쪽으로 橫書를 하나 우리는 反對로 右側 上端에서 부터 아래로 從書를 하여 왔었다(最近에는 西洋式의 筆記를 하고 있지만). 이러한 事實들은 우리가 日常 겪고 있는 여러가지 現象을 說明하고 困難한 問題를 處理함에 있어서 그것이 正常이고 何等의 異常이 없고 따라서 다른 說明方式은 있을 수 없고 다른 解決方法은 있을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事實中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證據인지도 모른다.